라스코 동굴의 중앙홀 일명 황소의 방 벽화

크로마뇽인이 그린 그림

라스코 동굴 벽화

글 _ 이종호 과학저술가 mystery123@korea.com

라스코 동굴의 사슴과 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케이프타운에서 290㎞ 떨어진 블로보스 동굴에서 인간이 그린 7만 년 전의 추상화

프랑스 남서부의 오리냐크 지역에는 크고 작은 30여 개의 선사 시대 동굴이 있는데, 그 중에서 라스코 동굴이 가장 유명하다. 동굴 그림이 그려진 시기는 대체로 1만5천~1만7천 년 전으로 추정되고 있다. 오리냐크의 라스코 동굴은 1940년 어린이들의 호기심 때문에 우연히 발견되었다.

이 고장의 나지막한 언덕에는 조그마한 구멍이 있었는데 어린 아이들은 그 곳에서부터 다소 멀리 떨어진 산 중턱에 있는 작은 성까지 통하는 길이 있다고 믿었다. 마르셀을 포함한 네 명의 소년은 정말로 통로가 있는지 탐험하면서 동굴을 찾아냈다.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기 시작한지 12년이 지난 1960년부터 푸른곰팡이가 기생하고 석회암 암벽에도 하얀 얼룩이 생기자 라스코 동굴은 1963년에 동굴 벽화의 일반 공개를 금지했다. 그 후로는 정부 기관의 추천장이 있는 전문가에 한해 하루 6명 이내로 동굴 벽화의 관람이 허용되고 있다. 그리고 일반 관람객을 위해서는 동굴이 발견된 바로 옆 장소에 라스코 동굴과 똑같이 모방한 동굴을 만들어 공개하고 있다.

말 · 황소 등 역동적 그림 100점 넘게 출토

라스코 동굴의 경우 그림이 그려진 시기를 1만5천~1만7천년 전으로 추정하며, 유명한 스페인의 알타미라 동굴은 이보다 약간 늦은 1만4천500년 전으로 추정한다.

크로마뇽인이 그린 그림은 라스코 동굴의 것이 최고 연대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근래 발견된 프랑스의 쇼베 동굴의 벽화는 무려 3만2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타제석기를 사용하던 구석기인들이 현대인들도 그리기 어려운 정교한 그림을 그렸다는데 놀라움보다도 인류의 문화생활 여건이 매우 오래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주는 증거라는데 큰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스코 동굴의 입구에 있는 중앙 홀에는 유명한 말과 황소들이 그려져 있다. 조사 결과 벽화는 모두 800점이 넘었다. 들소, 야생마, 사슴, 염소 따위가 주로 그려져 있고 드문드문 고양이나 주술사로 보이는 사람도 있었다. 중앙 홀에 그려진 검은 소는 가로가 5m도 넘는다. 빨강, 검정, 노랑, 갈색을 칠한 채색화가 많지만, 흠을 판 선각(線刻) 그림도 있다. 벽화의 짐승들은 하나 같이 역동적이고 생생한 모습을 띠고 있다. 뛰어 다니는 들소, 쉬고 있는 사슴, 숨을

라스코 동굴의 누워있는 크로마뇽인과 들소

헐떡이며 죽어가는 말 등 그림들은 지극히 사실적이다. 지구상에 서식하던 어느 동물과도 닮은 데가 없는 일각수 그림은 상상의 동물을 그린 것으로 추측된다.

동굴 안에 그려진 동물은 당시에 그들의 기술로 사냥이 가능했던 대상물일 것으로 여겨진다. 사자나 이리 따위의 맹수는 결코 사냥의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그리지 않았으며, 또 이 무렵에 무수히 번성하고 있었던 순록(馴鹿)도 사냥하는 데 별로 힘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그리지 않았으리라고 추측한다.

사냥 전 주술적인 용도로 동굴 벽화 그려

전문가들은 이처럼 사냥의 광경을 그린 그림 등을 감안할 때 동굴 벽화란 두 가지 목적으로 그려졌다고 추정한다. 첫째는 주술 용도이고, 두 번째는 사냥시의 요행을 바랐다는 것이다. 우선 벽화에 묘사된 동물의 형상이 토템으로서 아마도 그 형상들이 상징하는 힘과 속성에 일체감을 느끼는 집단이나 부족에 의해 의식이 진행되는 중에 제작되었을지도 모른다. 들소나 코뿔소들은 인간보다 힘이 세고 위험하므로 동물들의 힘을 억누르거나 줄이기 위해 사냥에 앞서 뭔가 주술적인 행사가 필요했을지도 모른다고 추정하는 것이다.

이런 예는 현대에도 종종 볼 수 있다. 독일의 인류학자 프로베니우스가 1905년 아프리카를 탐험했을 때의 일이다. 예비 식량이 바닥나자 안내원인 피그미족에게 영양을 잡아달라고 부탁했다. 피그미족은 수렵이 주업이라 영양 한 마리쯤은 쉽게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피그미족은 오늘은 준비가 안 되었으니 다음 날에 사냥을 하자고 거절하는 것이었다. 다음 날 피그미족은 새벽에 적당한 장소를 잡고 의식을 치르기 시작했다. 먼저 주문을 외우면서 집게손가락으로 영양의 그림을 그린 다음 해가 떠오르기를 기다렸다. 아침 햇살이 땅 위에 그려 놓은 그림 위에 비치자 영양의 그림을 향해 활을 쏜 다음에야 사냥에 나섰다.

두 번째는 사냥꾼들이 사냥물을 많이 잡을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나 묘사된 동물이 더 많이 나타나도록 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라스코 동굴 벽화에는 다른 동굴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그림이 있다. 바로 크로마뇽인의 그림이다. 한 남자가 창에 찔려 창자가 쏟아져 나온 들소 옆에서 두 팔을 벌린 채 커다란 성기를 내보이며 뒤로 벌렁 자빠져 있는 모습이다. 들소에게 치명상을 주기는 했지만, 자신도 역시 상처를 입고 쓰러진 상황을 그린 것이다.

7만년 전 블로보스 동굴 추상화가 最古

빙하기 직후의 인류는 동굴 안에서도 햇빛이 비치는 곳이라든가 바위틈에서 생활했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런데 동굴 그림들은 동굴 안에서도 깊숙한 구석에 그려져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고고학자 혹스는 "벽화를 그린 화가들은 우선 사자와 거대한 곰의 서식처로서 화랑으로 쓰일 동굴을 찾아야 했다. 또 고작 횃불이나 동물과 고래 기름 등불을 밝혀놓고 작업을 시작해야 했다. 그러다가 불이 꺼졌을 때 부싯돌로도 불을 켤 수 없는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이들이 익숙한 외부 세계와 동굴 입구에 있는 가족들의 생활공간과 멀리 떨어진 땅속 깊숙한 곳에 동물의 형상을 재현하려는 의지가 얼마나 강렬했는지 느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가축을 사육하면서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자 더 이상 주술적인 의미의 그림은 필요 없게 된다. 오히려 인간은 고대 인류가 지녔던 그림 솜씨를 잊어버리고 만다. 인간이 크로마뇽인의 그림 솜씨를 되찾게 된 것은 고대 인류가 동굴 그림을 그린지 적어도 몇 천년 후의 일이다.

학자들은 인간이 그린 가장 오래된 예술작품을 7만 년 전으로 추정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케이프타운에서 290㎞ 떨어진 블로보스 동굴에서 인간이 그린 추상화가 그 주인공이다. 이 추상화는 철광석의 일종인 '오커(ocher)'의 표면을 평평하게 한 다음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해 균등한 간격으로 대각선 여러 개를 긋고 다시 반대방향으로 대각선을 그어 마름모꼴과 삼각형을 표현했다. 학자들은 이 작품을 증거로 인류가 그 동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빠른 시기에 추상적으로 사고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고 추측한다. ST